

판 커진 대출 플랫폼… “한 눈에 쉽게” vs “더 빠르게”

핀테크

시중은행

핀다-핀셋·비바리퍼블리카 등
금리·한도·조건 등 정보 서비스

KB금융, 계열사 통합 대출플랫폼
별도 서류없이 심사·대출 원스톱

금융권의 대출플랫폼 경쟁이 시작됐다. 불을 붙인 건 규제 완화다. 지금까지 금융사를 지켜줬던 ‘1사 전속주의’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일시 면제·해제) 시행으로 특례를 인정받으면서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던 것이 최근에는 대출플랫폼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핀테크 업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규제 특례를 활용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

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시중은행 역시 금융그룹 계열사를 활용한 대출플랫폼으로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인 핀다와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이 이달 중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소비자가 각각의 모바일 앱인 핀다(FINDA)와 토스를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리와 한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대출조건 선택과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핀셋은 여기에 신용이나 부채관리 등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별 부채를 통합 관리해 연체같은 신용상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핀테크는 자동차 금융 플랫폼 ‘렌킷’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렌킷을 통해 구매하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기타 데이터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원하는 조건을 확약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통합 플랫폼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 등 주요 4개 계열사 통합 신용대출 플랫폼인 ‘KB이지(Easy)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KB 이지대출은 KB금융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Mate)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KB

이지대출 메뉴에서 4개 계열사 전부 또는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고 대출 회망금액 등을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대출 가능여부 심사까지 완료된다.

간편한 프로세스를 통해 각 계열사 별 최적 대출한도와 금리뿐만 아니라 개인별 최대 대출 가능한도와 가중평균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계열사 채널을 통해 바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4개 계열사 대출상품을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출플랫폼 ‘스마트 대출마당’을 출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저축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 등을 조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 이지 대출’ 서비스 화면 캡처



JB금융그룹은 2일 신입직원들의 창의력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신입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모호하고 불리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

» 1면 ‘MRI·CT 이상소견’서 계속

보험사들은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CDR 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 진단 때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 30일 이상의 약 복용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약제투약 조건 삭제는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치매약제 투약 여부를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정한 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보험사가 자사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보험금 지급통계 등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에 특정치매질병코드를 요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미 판매된 치매보험의 경우 7월 중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보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이 2일 서울 여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치매보험 등 보험약관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3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별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89@

허인 KB국민은행장

“사람 중심의 혁신이 진짜 혁신”

디지털화 혁신 당부… “대면 강점 유지, 비대면 강화”



하고 공정한 인사야말로 우리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열정을 지속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경영전략”이라며 “과거의 관리중심, 통제중심 HR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정신 아래 개방적이고 분권화된 ‘열린 HR’로의 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KB를 이끌 어갈 주역인 ‘우먼파워’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수한 여성인력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 기업금융을 비롯한 은행 전 분야에서 여성들이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환경조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銀, 조직개편 단행…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디지털금융그룹 ‘BIB’ 별도 운영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디지털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디지털금융그룹을 ‘은행 안에 은행(BIB, Bank in Bank)’ 형태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 디지털금융그룹에 사업추진의 독립성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금융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금융그룹은 예산 및 인력 운영·상품개발 등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핀테크 기업과 오픈API 기반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달 중 모바일뱅킹



‘원터치’를 ‘우리은행(W)이 모바일금융 시장의 새시대를 연다(ON)’는 뜻의 ‘W ON’으로 개편한다. ‘WON’뱅킹은 간편

뱅킹 ‘위비뱅크’와 함께 BIB의 핵심채널로 활용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WON’을 대표 브랜드(BI, Brand Identity)로 해 그룹사 전체의 모바일 브랜드를 하나(ONE)로 통합 관리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영업력 강화와 수의 성 디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글로벌IB 금융부’를 신설해 글로벌 IB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IB 전담 싱사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계획이다.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를 신설해 중견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직연금자산 관리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자산운용 상품 및 은퇴설계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